

2025년 1월 9일 대구 2025-2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박나라
Tel. (053)429-0256 Fax. (053)429-0219 E-mail. daegu@bok.or.kr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대구경북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붙임)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2025. 1.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작성자〉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박나라 과장

〈조언자〉 강기우 팀장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요약>	
I. 검토 배경	1
II.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및 연체율 현황	2
1. 자영업 개황	
2. 자영업자 부채 현황	
3. 자영업자 연체율 현황	
III. 대구지역 자영업자 관련 리스크 점검	9
1.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한 영업기반 약화	
2. 자영업자간 이익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	
3. 고연령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증가	
IV. 종합 및 시사점	14
1. 종합	
2. 시사점	
참고 자영업자의 출처별 정의 및 자영업자 부채 분석범위	17
<참고문헌>	18

요약

- ① 대구는 자영업이 지역경제^{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자영업자 부채 증가와 수익 감소로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 2024년 2/4분기말 기준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는 55.9조원으로, 전국 자영업자 부채 중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차주 1인당 대출액은 3.8억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3.4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는 비은행권(상호금융 등), 대면서비스업(도소매·음식·숙박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며, 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여타 광역시 대비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 ② 최근 대구지역 자영업은 역내소비 축소로 인한 영업기반 약화와 높은 경쟁강도 등으로 자영업자간 이익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채무부담이 높은 취약자영업자(하위소득·고령층 등)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역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간 양극화 확대로 영세규모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고연령 자영업 차주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 차주의 채무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차주수는 2.2배, 연체차주수는 4.3배 증가하였으며, 24.2/4분기말 50대와 60대 이상 차주의 1인당 부채규모(각각 4.3억, 4.6억)도 여타 광역시(각각 3.5억, 4.0억)를 각각 0.8억원, 0.6억원 상회하였다.
- ③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자영업자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대구 자영업자의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출발기금¹⁾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재취업 등이 어려운 취약자영업자(고령층 등)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환능력과 취약성 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신용 관련 지표를 확충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용 절감, 매출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 지역민과 외지인의 지역내 자영업종에 대한 역내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지역내수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1)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출시되어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의 부실(우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매입 등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I. 검토 배경

- 1.1. 대구는 자영업²⁾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³⁾은 지역으로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편이다. 대구는 대구경북 권(이하 대경권)의 소비거점으로 인접 시도로부터 유입되는 소득과 소비를 근간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위주의 자영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대구지역에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데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많지 않고 임금 등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⁴⁾한 점에도 기인한다.
- 1.2. 대구지역의 자영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경쟁강도가 높고 수익성이 부진하였⁵⁾으며,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부실 규모도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정책자금, 보증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으나 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자금이 저신용 등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를 포함한 보편적 지원 성격으로 공급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 1.3. 대구지역 자영업 업황 부진과 이로 인한 부실은 지역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충격기 이전부터 최근 5년⁶⁾(2019년~2024년)간 대구지역 자영업자 현황, 부채 및 관련 리스크를 여타 광역시⁷⁾와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제공된 우대금리 등이 종료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도래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실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부채 리스크를 평가하고 안정적 관리 방안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유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영업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출처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본고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참고> 자영업자의 출처별 정의 및 자영업자 부채 분석범위’를 참조하기 바란다.

3) 대구지역 내 자영업 비중은 2020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25.0%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전국 평균(각각 13.6%, 14.8%)을 크게 상회한다. (통계청 경제총조사)

4) 대구지역 상용근로자의 세전 임금은 2023년 월 334만원으로 8개 특광역시 중 8위이며, 대구지역 근로여건 및 소득 만족도 역시 각각 28.8%, 24.3%로 8개 특광역시 중 8위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5)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경쟁강도(인구 100명당 자영업자수)는 2019년중 11.6명, 2024.9월중 10.7명으로 여타광역시 평균(각각 9.4명, 9.5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에 반해 대구지역 자영업자 이익은 2016~2019년중 연평균 2.0% 감소, 2020~2022년중에는 5.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부진이 계속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

6) 본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은 대상기간이 2019년말 대비 24.2/4분기말을 의미한다.

7) 여타 광역시는 대구를 제외한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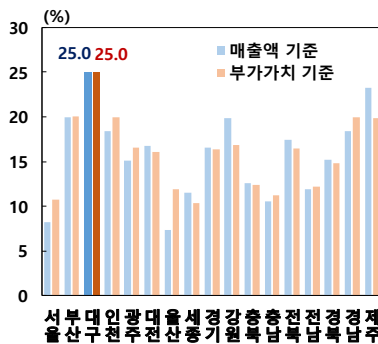
Ⅱ.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및 연체율 현황

1. 자영업 개황

2.1. 대구는 자영업이 지역경제^{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다. 고용 측면에서도 대구의 자영업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⁸⁾. 매출액 규모 면에서는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고(대구 28.5%, 여타 광역시 26.1%; 23년 기준) 영세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19년 26.9% → 23년 28.5%). 2023년 기준 대구지역의 자영업자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도소매(24.4%), 음식숙박(10.4%) 등 대면서비스업과 제조업(7.7%) 비중은 높은 반면 부동산업(22.4%) 비중은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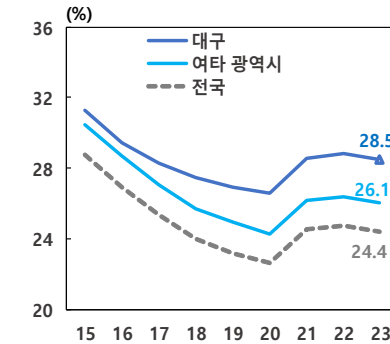
대구지역 자영업은 여타 광역시 대비 영세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이 높음

[그림 1] 지역경제 내 자영업¹⁾ 비중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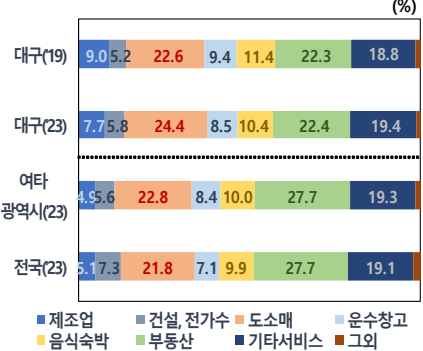
주: 1) 전체 부가가치(매출액) 대비 개인 사업체의 부가가치(매출액) 비중
자료: 통계청(경제총조사)

[그림 2] 영세²⁾ 자영업 비율



주: 2) 가동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대상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그림 3] 업종별 자영업자 비중³⁾



주: 3) 가동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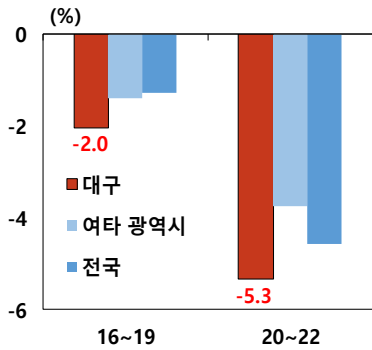
2.2. 최근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수익성 격차는 확대되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2016년부터 추세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타 지역에 비해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역내소비가 여타 도시에 비해 크게 둔화된 데다 영세업자가 많아 물가상승분을 가격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경권 음식점업에서는 타 권역대비 식재료·인건비 부담이 커지고(19년 64.5% → 22년 72.9%, 전국 66.9%; 매출액 대비 비율) 영업이익률도 크게 하락하였다(19년 18.4% → 22년 8.1%, 전국 11.6%; 매출액 대비 비율).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른 수익성 격차가 확대⁹⁾된 가운데 대경권 자영업자는 매출이 적은 영세업자가 많아(5천만원 미만 비중 13.6%, 1억원 미만 38.1%) 타격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8) 2022년 대구지역의 자영업체(개인사업체) 수 및 관련 종사자 수가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3.9%, 44.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9) 2022년 전국 외식업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9%(19년 14.4%),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0.3%(19년 15.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6.5%(19년 16.0%), 5천만원 미만은 영업손실(19년 19.4%)로, 매출액 규모에 따른 수익성 격차가 코로나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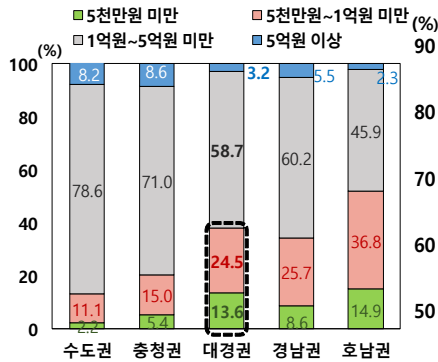
대구 자영업자 수익성은 크게 악화 대경권 외식업체는 매출액 규모가 작고 이익률이 크게 하락

[그림 4] 자영업자 이익 증감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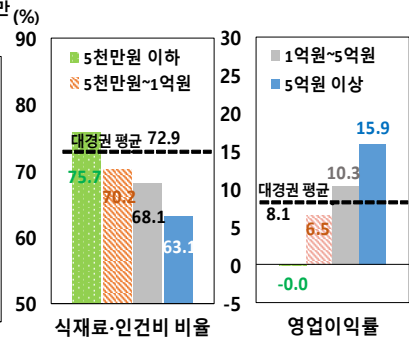
주: 1) 개인 영업이익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통계청(지역소득)

[그림 5] 외식업 매출규모별 업체 비중 (2022년중)



주: 2) 매출액 대비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외식업체실태조사)

[그림 6] 외식업 매출규모별 영업이익률²⁾ 및 식재료·인건비 비율²⁾ (2022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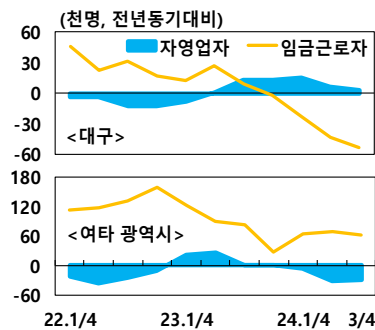


2.3.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수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 자영업자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직후 소폭 감소하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최근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여타 광역시와는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구지역의 임금수준이 타 지역 대비 낮은 데다 지역기업의 상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임금근로자 등이 자영업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근로자가 퇴직 이후 소득활동으로 소규모 자영업에 쏠리는 비중도 최근 소폭 늘어났다(19년 28.3% → 23년 33.4%). 이에 따라 2024.9월 현재 대구지역 인구 100명당 자영업자 수는 10.7명으로 광역시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간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순폐업률은 2023년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높아졌으며¹⁰⁾, 이러한 현상은 부진한 내수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이후 대구지역에서는 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자영업자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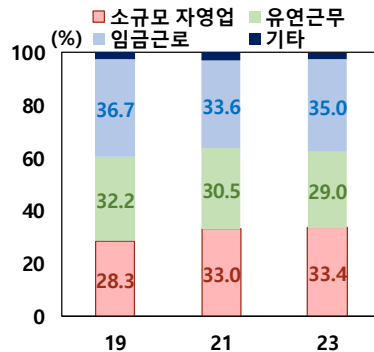
대구 자영업자 경쟁도는 여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

[그림 7] 자영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8] 대구 퇴직후 소득활동 유형¹⁾



주: 1) 소득활동 없음 제외
자료: 대구광역시(사회조사)

[그림 9] 자영업자 경쟁도³⁾ (인구수대비)

	19	22	24.9
대구	11.6	10.2	10.7
(여타 광역시)	9.4	9.6	9.5
부산	9.8	10.7	9.5
인천	9.3	9.2	9.5
광주	10.0	10.0	10.6
대전	9.6	9.7	9.6
울산	7.8	7.0	8.0

주: 2) 주민등록인구 100명당 자영업자 수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0) 대구 자영업자 순폐업률(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신규사업자 증가 및 폐업자 감소로 줄어들었다(2020~2022년중 평균 68.2%) 2023년에 83.1%로 늘어나 2019년 수준(78.3%)을 상회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

2. 자영업자 부채¹¹⁾ 현황

2.4.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는 2024.2/4분기말 기준 55.9조원으로, 전국 자영업자 부채중 5.3%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여타 광역시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20.1/4~21.1/4분기 평균 +14.9%, 여타 광역시 13.7%;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4년 들어 감소 전환하였다(24.상반기 평균 -2.3%).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최근 5년간 부채규모는 1.4배(+15.1조원), 차주수는 1.5배(+4.8만명) 증가하였다. 자영업자 부채는 주로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며(사업자 +10.9조원, 가계 +4.2조원), 자영업자 중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대출비중은 소폭 하락(85.3% → 84.1%)하였다. 24.2/4분기말 현재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차주 1인당 대출액은 3.8억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3.4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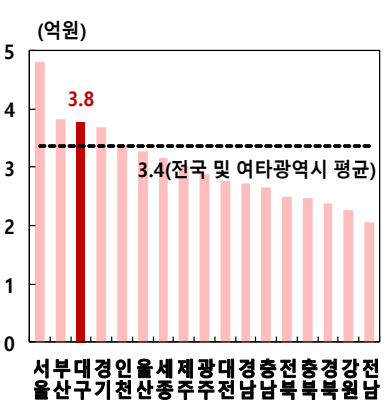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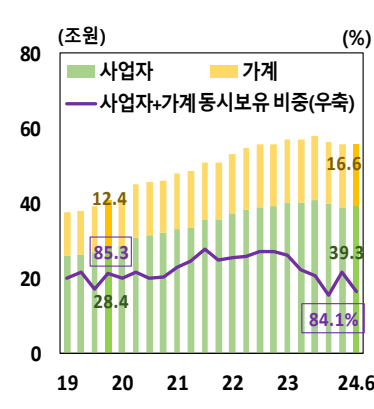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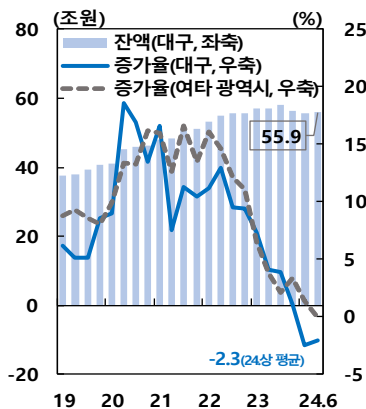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되며 24년 들어 감소 전환

대구의 자영업자 부채는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차주당 부채 규모는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높은 편

[그림 10] 대구 자영업자 부채 추이¹⁾

[그림 11] 대구 자영업자 부채 구성²⁾

[그림 12] 지역별 자영업자 차주 1인당 부채 수준²⁾ (24.2Q)



주: 1) 분기말 잔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2)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2.5. 최근 5년간 자영업자 부채 증감을 차입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완만하게 늘었으며 비은행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¹²⁾. 기타 업권(2.9배)¹³⁾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보증 및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시기별로는, 은행을 통한 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중 집중되었으며 상호금융 등 비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2021~2022년중 취급이 많았다. 우량차주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의 은행권을 통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비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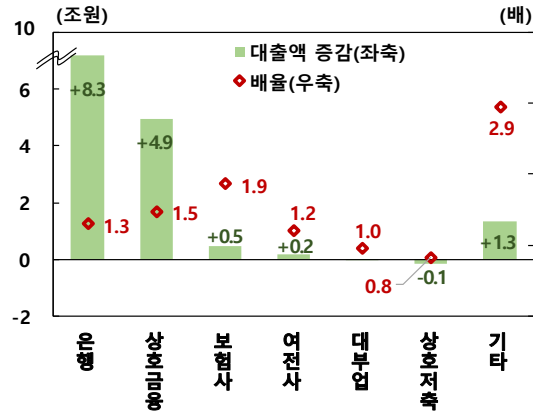
11) 본고의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가계대출 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대출액을 역산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부채 범위는 전체 금융권(대부업권 포함, 단, 연체를 계산시에는 제외)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였다.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는 '참고' 자영업자의 출처별 정의 및 자영업자 부채 분석범위'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2024.2/4분기말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잔액은 2019년말 대비 총 15.1조원 증가하였으며,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에서 8.3조원, 비은행에서 6.8조원 증가하였다. 비은행기관 중에서는 상호금융의 증가규모가 가장 컸다(+4.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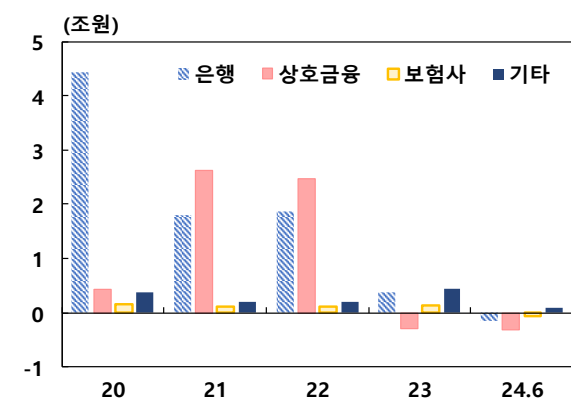
13) 새출발기금(대출보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2022.10월 출범)이 기타 업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금융권에서 이관된 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업권별로는, 부채는 은행 및 상호금융 업권에서 주로 증가

[그림 13]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업권¹⁾별 증감²⁾
(19.4Q~24.2Q)



[그림 14]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주요 업권별 증감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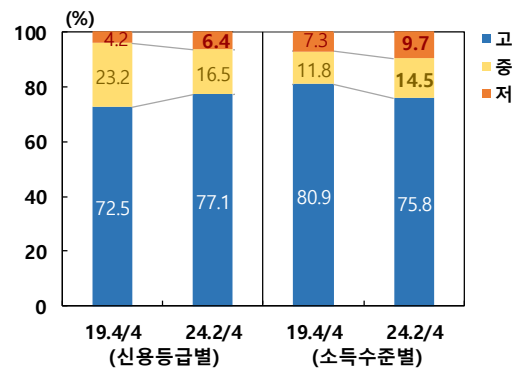


주: 1) 기타 업권은 대출보증, 새출발기금(22.10월 출범) 등을 포함
2) 대출액 증감은 19.4/4분기-24.2/4분기 말잔의 절대 증감, 배율은 상대 비율임 (19.4/4=1)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2.6. 신용과 소득 수준¹⁴⁾별로 보면, 저신용이거나 저소득인 자영업 차주에서 부채 증가세가 뚜렷하였다. 최근 5년간 신용등급별로는 중신용 대출 비중이 축소되고 저·고신용 비중은 늘어났으며,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 비중이 줄고 중저소득 차주 비중은 증가하는 등 대출차주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그림 1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저신용 자영업자중 중고소득인 경우와 저소득 자영업자중 고신용인 경우에서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그림 16)¹⁵⁾. 저신용·저소득이더라도 중고소득이나 중고신용 등 상대적으로 대출여력이 있는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부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신용·소득 수준별로는, 주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의 부채가 증가

[그림 15]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신용 및 소득 수준별 비중¹⁾



[그림 16] 자영업자 부채의 신용 및 소득 수준별 변동²⁾
(19.4Q~24.2Q)

	(대구)				(여타 광역시)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계)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계)
저소득	0.9	1.9	2.0	1.8	1.2	1.7	1.8	1.7
중소득	3.9	1.5	1.6	1.7	1.8	1.2	1.8	1.6
고소득	2.1	0.8	1.4	1.3	1.2	1.0	1.5	1.4
(계)	2.1	1.0	1.5	1.4	1.4	1.1	1.6	1.5

주: 1) 분기말 부채잔액 기준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2) 19.4/4분기말 잔액(A) 대비 24.2/4분기 말잔(B) 기준 (B/A)

14) 신용등급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은 고신용, 665점~839점은 중신용, 664점 이하의 저신용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상위 30%는 고소득, 30%~70%는 중소득, 하위 30%는 저소득으로 분류하였다.

15)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서는 저신용이면서 중소득인 차주의 부채규모는 3.9배, 저신용·고소득 차주는 2.1배 증가한 반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 차주의 부채규모는 감소(0.9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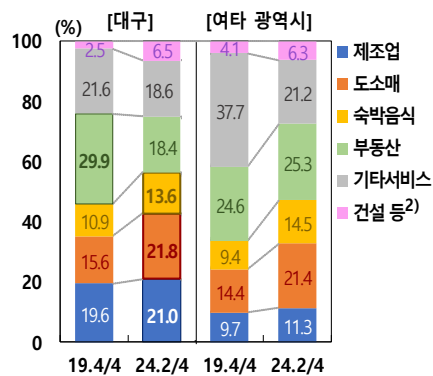
2.7.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부채 비중은 도소매(+6.2%p; 19년말 대비 24.2/4분기말), 숙박음식(+2.7%p) 및 저신용 차주가 많은 제조업(+1.5%p)에서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반면 부동산업의 경우 대구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투자가 급감하면서 부채 비중이 큰 폭 축소(-11.5%p)되어 여타 광역시와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2.8. 연령별로는, 고령층(60대 이상) 대출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여타 광역시와 달리 중간연령층(40대)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최근 5년간 50대와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액(50대 +5.4조원, 60대 이상 +8.0조원)은 전체 증가액(+15.1조원)의 88.7%를 차지하였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나면서(16)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40대 1.1배, 50대 1.3배, 60대 이상 2.0배). 이에 따라 대구지역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빠르게 증가(19.6% → 28.6%)하여 여타 광역시(23.3% → 29.5%)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4.2/4분기 현재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비중은 여타 광역시(61.7%) 대비 높은 수준(66.6%)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구지역 40대 자영업자의 대출비중은 여타 광역시(+1.0%p)와 달리 급감(-7.2%p)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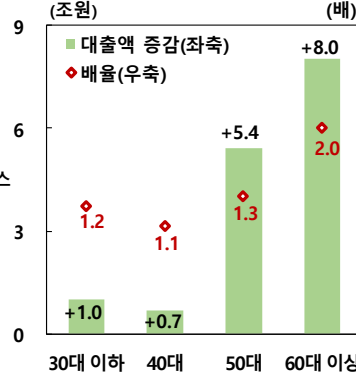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부동산업은 축소

고연령층으로 대출이 집중되면서 중간연령층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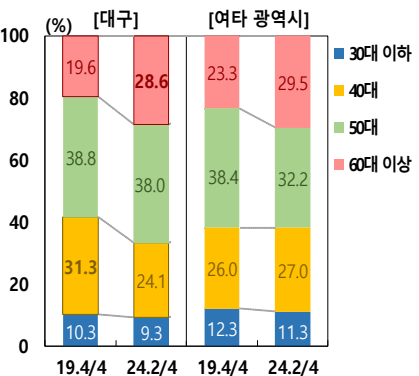
[그림 17]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업종별 비중¹⁾



[그림 18]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연령별 증감³⁾(19.4Q~24.2Q)



[그림 19]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연령별 비중¹⁾



주: 1) 분기말 부채잔액 기준 2)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농업 및 광업을 포괄
3) 대출액 증감은 19.4/4-24.2/4분기 말잔의 절대 증감, 배율은 상대 비율임(19.4/4분기=1)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3. 자영업자 연체율 현황

2.9. 대구지역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¹⁷⁾은 24년 상반기 평균 2.7%(금액 기준)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자영업 취약차주¹⁸⁾를 중심

16) 최근 5년간 대구지역 60대 이상 자영업자수(가동 개인사업자 기준) 및 자영업 차주수 비중은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2019년 26.0% → 2023년 30.8%, 2019년말 15.9% → 2024.2/4분기말 23.3%)하였다. (국세청 국세통계, 한국은행 가계부채DB)
17) 자영업자 연체율은 분기말 연체액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분기말 연체율의 반기평균(19.하반기 평균 대비 24.상반기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영업자 부채 현황의 분석시점(19년말 대비 24.2/4분기말)과는 차이가 있다.
18) 자영업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대출기관수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 차주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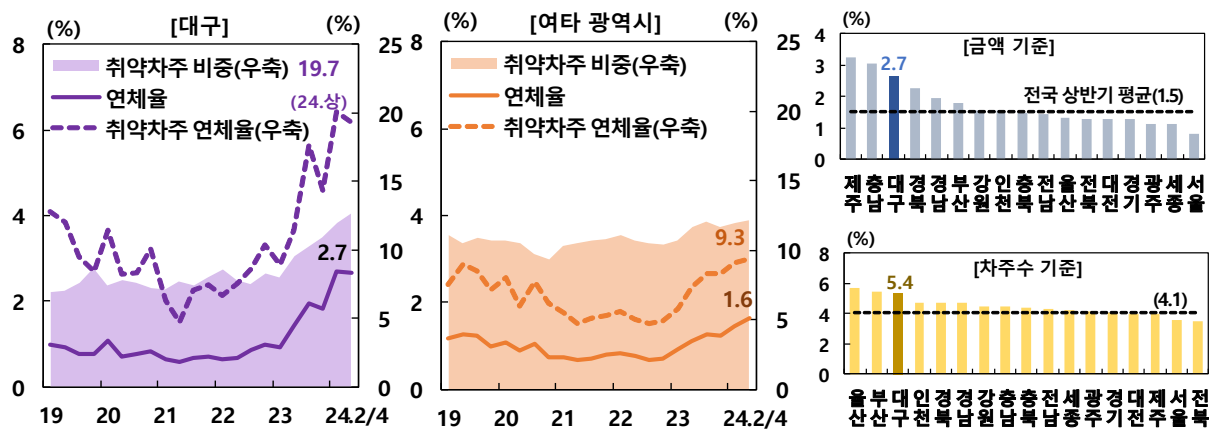
으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부진해 대구지역의 자영업 취약차주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과 코로나19 지원 대출의 우대금리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자영업 취약차주 비중(19.하 8.1%→23년 9.7%→24.상 12.3%, 기간중 평균)과 이들 취약차주 연체율(9.0%→13.1%→19.7%)은 202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24년 상반기 평균 19.7%로 여타 광역시(9.3%)의 2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금액과 차주수 기준 자영업자 연체율 순위도 대구가 24년 상반기 전국 시도 중 3위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하반기(9위)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자영업자 연체차주 1인당 연체규모 역시 대구가 여타 광역시보다 빠르게 증가²⁰⁾하는 등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는 다양한 형태로 관찰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

타 지역 대비 높은 연체율 수준

[그림 20] 대구지역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¹⁾²⁾

[그림 21] 지역별 연체율 (24.상)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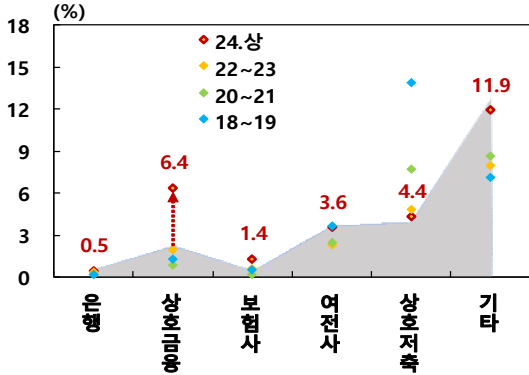
주: 1) 연체율 및 차주 비중은 금액 기준 2) 연체율 계산시 대부업권 미포함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2.10.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에서, 신용 및 소득 수준별로는 저신용·중고소득 차주에서 주로 상승하였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취급이 많았음에도 안정적인 연체율(24.상 0.5%)을 유지한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상호금융(6.4%)과 기타 업권(11.9%)²¹⁾에서의 연체율 상승이 뚜렷했다.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올라가 여타 광역시 대비 상승폭이 매우 컸다(23.하 1.4%→24.상 6.4%, 여타 광역시 1.3%→2.2%). 신용 및 소득 수준별로는, 저신용차주와 중고소득 차주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저신용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개선 지연으로 매출 확대가 제한되어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소득 자영업 차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과 코로나 피해 지원 우대조치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상환여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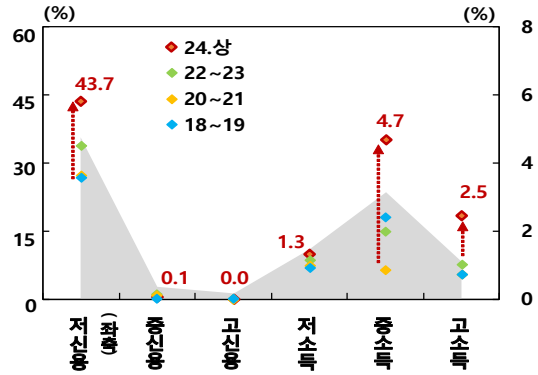
19) 대구지역은 코로나19 이전인 19.하반기 평균 자영업 취약차주 대출비중이 8.1%로 여타 광역시(9.1%)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나, 계속되는 대구지역의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하락, 대출금리 상승 및 금리 우대·거치기간 종료 등으로 2023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 대구의 자영업자 연체차주 1인당 연체액은 24.상반기 평균 1.9억원으로 19.하반기(평균 1.1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1.1억원에 머무른 여타 광역시와는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21) 기타 업권은 새출발자금 등이 해당업권으로 분류되고 타 업권의 부실(우려)채권이 편입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연체율은 상호금융 업권과 저신용·중고소득 차주에서 빠르게 상승

[그림 22] 대구 자영업자 업권별 부채 연체율¹⁾²⁾



[그림 23] 대구 자영업자 신용소득 수준별 부채 연체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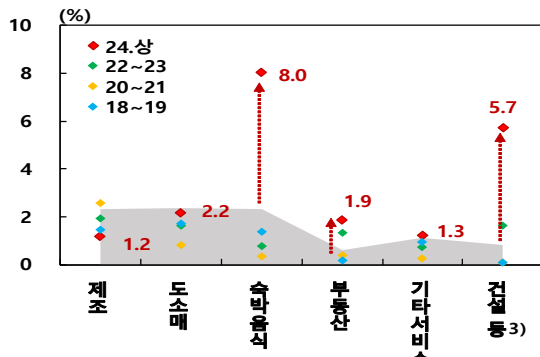


주: 1) 연체율은 분기말잔 연체율의 기간중 평균, 대부업권 미포함 2) 음영은 여타 광역시 기준 연체율(24.상반기 평균)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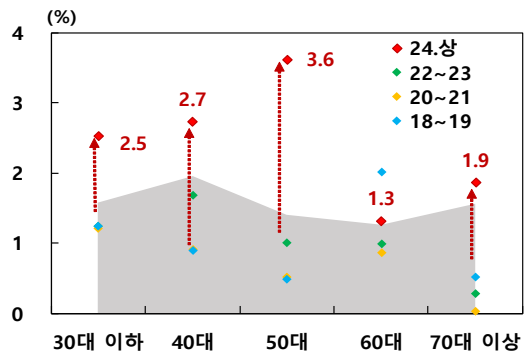
2.11. 업종별로는 숙박음식과 부동산·건설 등에서,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대구지역 자영업 차주 중 숙박음식업의 연체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빠르게 상승(+7.4%p, 19.하 0.6% → 24.상 8.0%)하여 24년 상반기 현재 여타 광역시 평균(2.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대구지역 숙박음식업의 연체차주 1인당 연체액은 24년 상반기 기준 여타 광역시의 4.4배²²⁾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건설 업종 역시 대구의 건설경기 부진 등이 반영되어 여타 광역시보다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대구 자영업 차주 전 연령층에서 연체율이 여타 광역시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50대 자영업 차주의 연체율은 상승 속도와 수준에 있어 여타 광역시 대비 가장 뚜렷하였다(대구 3.6%, 여타 광역시 1.4%; 24.상 기준). 대구지역 숙박음식업 연체액의 대부분은 50대 차주에서 발생하였다(83%; 24.2/4분기말 잔액 기준).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동 기간중 대출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상반기 현재 연체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타 광역시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체율은 숙박음식, 부동산·건설 등 업종과 50대 차주에서 주로 상승

[그림 24] 대구 자영업자 업종별 부채 연체율¹⁾²⁾



[그림 25] 대구 자영업자 연령별 부채 연체율¹⁾²⁾



주: 1) 연체율은 분기말잔 연체율의 기간중 평균, 대부업권 미포함 2) 음영은 여타 광역시 기준 연체율(24.상반기 평균)
 3) 건설업, 전기기스수도업, 농업 및 광업을 포함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22) 2024년 상반기 평균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대구가 약 1.9억원, 여타 광역시는 1.1억원이었으며, 이중 숙박음식업의 경우 대구는 3.1억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0.7억원)을 크게 상회하였다.

Ⅲ. 대구지역 자영업자 관련 리스크 점검

1.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한 영업기반 약화

3.1. 대구는 대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민간소비 변화에 따른 업황 변화폭이 크다.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자영업자 영업이익은 민간소비 감소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비 회복시에도 증가가 더딘 모습을 보여 소비 둔화에 따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이후 지역민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대구지역 소매판매액은 24년(24.1~9월)까지 8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보다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영세 소매점과 잡화점 등에서 소비 축소가 더욱 뚜렷해 지역 자영업자의 영업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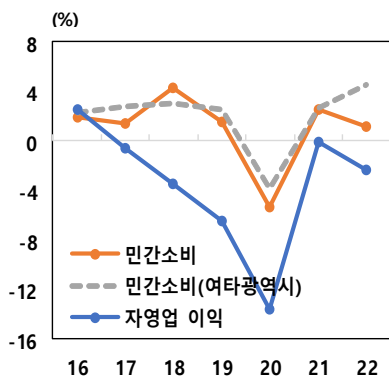
대구 민간소비 부진으로 자영업자 영업기반이 더욱 약화

대구 지역민의 소비 역외유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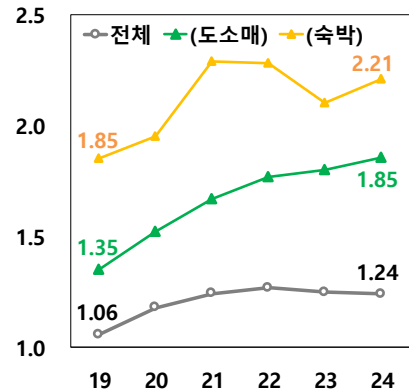
[그림 26] 대구 민간소비 및 자영업자 이익¹⁾ 증감률

[그림 27] 소매판매액 추이

[그림 28] 대구 지역민 신용카드 소비 역외순유출률²⁾³⁾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2	23	24.1~9
대구	-0.6	-3.8	-3.5
(슈퍼마켓 잡화점)	-0.2	-4.5	-7.6
(전문소매 (백화점))	-0.7	-4.6	-3.4
부산	-0.2	2.0	0.9
인천	2.2	0.0	-4.4
광주	-2.1	-1.8	-3.5
대전	0.5	4.2	-2.4
울산	-1.5	2.5	-3.9



주: 1) 개인 영업잉여(원천), 2020년 기준년
 2) 대구지역민(청구지 기준)의 기간중 신용카드 역내소비액 대비 역외소비액(가맹지 기준), 24년은 1~9월중
 3) 도소매업 중 백화점과 면세점, 숙박업 중 호텔 대상 지출액은 제외
 자료: 통계청(지역소득, 서비스업동향조사), 신용카드 3사(농협, 하나, 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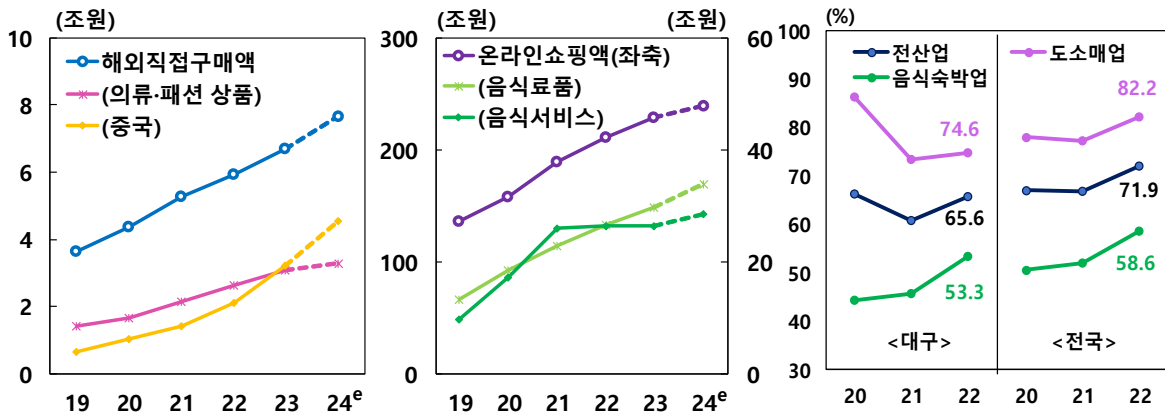
3.2. 온라인 및 플랫폼 거래 확산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음식숙박 등 자영업자가 많은 주요 업종에서 소비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경북 등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소비유입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소비는 2022년 이후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2019~2024년) 대구 지역민의 역내소비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부진해진 데 크게 기인한다. 지역민 신용카드 지출로 추산한 소비의 역외순유출률(역외소비/역내소비)은 19년 1.06에서 24년(1~9월중, 이하 동일) 1.24로 상승하였다. 특히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도소매업²⁾³⁾의 역외순유출률은 더욱 빠르게 상승하였다(19년 1.35 → 24년 1.85). 온라인 및 플랫폼 거래 확산으로 타 지역으로부터의 비대면 소비가 용이해지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오프라인 도소매업을 통한 소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

23) 2024년 1~9월중 대구 지역민의 전체 신용카드 소비 지출의 33.4%가 도소매업에서 사용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 역외순유출률 계산시 도소매업 대상 신용카드 소비 지출액 중 거래처가 대기업이나 법인인 백화점, 면세점 대상액은 제외하였다.

류·패션 관련 도소매업은 최근 해외로부터의 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역내소비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가 상품이 많은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구매(60.8%, 24.3분기 기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관련 지역내 도소매 자영업자의 가격경쟁력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에서도 소비의 역외순유출률²⁴⁾이 높아졌으며(19년 1.85 → 24년 2.21) 음식업은 주로 대면으로 소비 되는 특성으로 인해 소비 역외유출률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 역내소비의 회복속도가 타 업종에 비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음식료품·음식서비스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음식업종에서의 역내소비를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지역의 경우 온라인 중심의 최신 소비 흐름에 다소 뒤쳐져 전자상거래 비중이 전국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온라인 소비의 확대 추세는 지역 자영업자의 경쟁범위를 확장시켜 역외소비 유출을 빠르게 하고 자영업자 영업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플랫폼 거래 등 활성화로 역내소비가 줄고 자영업자 영업기반이 위축될 우려

[그림 29] 최근 해외직접구매액 추이¹⁾ [그림 30] 최근 온라인쇼핑액 추이¹⁾ [그림 31] 지역 및 업종별 전자상거래 기반 매출액 비중²⁾



주: 1) 24년은 1~9월중 구매액을 연환산한 금액
자료: 통계청(온라인쇼핑동향조사)

주: 2) 전자상거래 실적 있는 사업체 대상
자료: 중소기업벤처부(소상공인실태조사)

2. 자영업자간 이익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

3.3. 대구지역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최근 재차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경쟁강도 역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및 사업체 수 기준 대구의 자영업 비중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각각 44.1%, 83.9%)이다. 인구 100명당 자영업자수도 2024.9월 현재 10.7명으로 여타광역시 평균인 9.5명을 크게 상회하는 등 경쟁강도 역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자영업자수는 2023년 이후 최근(24.3/4분기)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4년 들어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여타 광역시 및 전국과는 다른 흐름이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 3개년(20~22년)간 자영업 폐업자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영향으로 감소해 순폐업률(폐업/신규)이 코로나

24) 숙박업 역외순유출률 계산시 신용카드 소비 지출액 중 거래처가 대기업이나 법인인 호텔 대상액은 제외하였다.

이전인 2019년(78.0%)보다 낮은 수준(평균 68.2%)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코로나 피해 금융지원 등으로 퇴출 등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지연된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²⁵⁾. 다만 내수부진이 심화된 2023년 들어 대구 자영업자의 순폐업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아졌는데(83.1%), 특히 20~22년중 금융지원 등으로 폐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조업(115.5%), 도매업(105.0%), 음식업(98.5%)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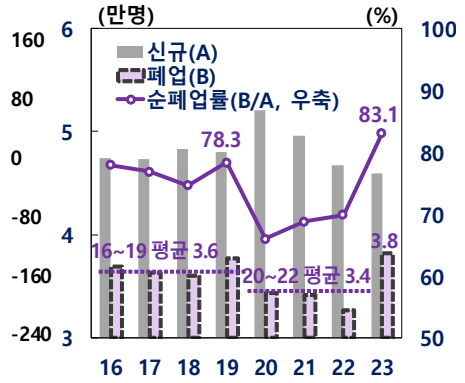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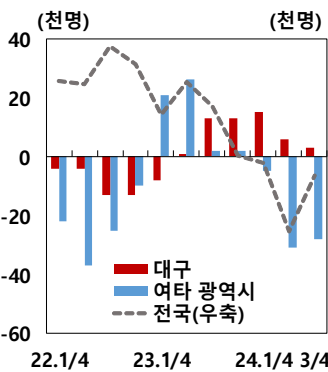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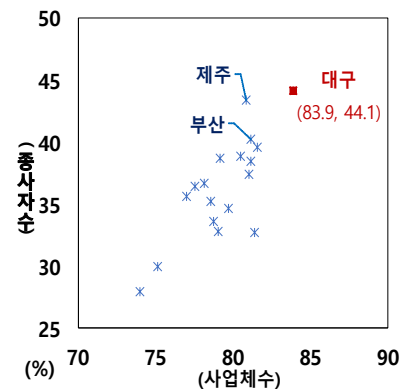
대구 자영업자의 경쟁도는 최상위권이나 자영업자수는 증가 추세

자영업 순폐업률은 코로나 이후 급감

[그림 32] 자영업¹⁾ 비중 (사업체·종사자 대비)

[그림 33] 자영업자수 증감²⁾

[그림 34] 대구 자영업¹⁾ 순폐업률



주: 1) 개인사업체 기준(2022년)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3.4. 자영업자간 이익격차 확대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성 회복이 어려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자영업자의 이익 확대가 제약된 상황에서 그간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영업비용이 상승하고 비대면·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대구지역 자영업자간 이익 차별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2020년중 대구지역 자영업자 상위권(20%) 소득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으나 소득 하위권(20%) 대비 배율(소득 5분위/1분위 배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서울, 세종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2024년 상반기 기준 매출지니계수²⁶⁾로 살펴본 자영업자간 매출액 양극화 정도는 자영업자가 주로 포진된 서비스업(5위), 그중에서도 도소매업(1위)과 음식업(2위)에서 대구지역이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의 도소매업에서의 자영업자간 양극화 정도는 최근 수년간 계속 심화되고 있다(22.하 0.714→ 23.하 0.718→ 24.상 0.721, 매출지니계수 기준). 한편 대구지역에서 자영업 폐업사유로 사업부진을 꼽은 비중(19년 37.7%→23년 52.9%)은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소득이 적은 영세규모의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뚜렷(간이과세자 기준 19년 35.9%→ 23년 56.6%)한데 향후에도 자영업자의 폐업이 수익성 회복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더욱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25) 2020~2022년중 자영업자(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이전(2016~2019년)에 비해 급감하였는데 이는 대구지역에서 더욱 뚜렷했다. (대구 -8.3%, 여타 광역시 -2.9%, 전국 -2.9%. 국세청 국세통계).

26) 매출지니계수는 매출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로렌츠곡선과 완전평등선 사이의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0-1 사이 범위에서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불평등)되었음을 의미한다.

대구지역 자영업 중 서비스업 매출액 격차는 전국 시도중 최상위 수준

[그림 35] 자영업자 매출액 격차(24.상)¹⁾
(서비스업)

순위	지역	매출지니계수
1	경북	0.764
2	울산	0.757
3	경남	0.753
4	충남	0.752
5	대구	0.750
...		
17개 시도(전국) 평균		0.734

(도소매업(유통업))

순위	지역	매출지니계수
1	대구	0.721
2	울산	0.702
3	광주	0.695
"	제주	0.695
5	경북	0.690
...		
17개 시도(전국) 평균		0.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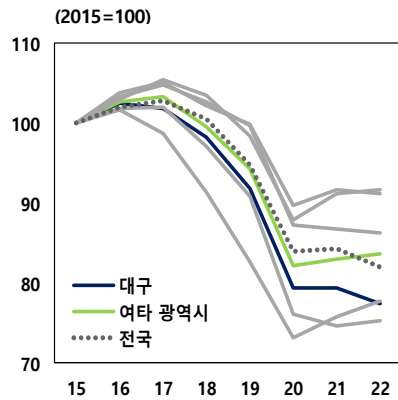
(음식업(외식업))

순위	지역	매출지니계수
1	부산	0.590
2	대구	0.587
3	경북	0.567
4	광주	0.565
5	울산	0.554
...		
17개 시도(전국) 평균		0.555

주: 1) 매출지니계수는 사업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0-1 범위중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불평등)되었음을 의미
자료: 한국신용데이터(소상공인동향 리포트)

자영업 이익은 축소되고 자영업자 간 이익은 양극화

[그림 36] 대구 자영업자 이익¹⁾ 추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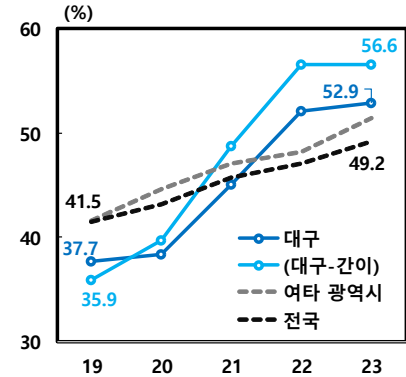
주: 1) 개인 영업잉여(2020년 기준년)
2) 회색실선은 5개 여타 광역시의 개별 추이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지역소득), 국세청(국세통계)

영세 자영업자의 부진이 증가

[그림 37] 자영업자 상위 20% 연평균소득 분포 (2020년)

	상위 20% (A)	하위 20% (B)	5분위 배율 (A/B)
대구	10,120	93	108.9
부산	8,804	90	97.8
인천	6,010	79	76.3
광주	7,722	74	104.4
대전	7,245	71	102.5
울산	7,412	81	91.4
서울	8,674	58	148.8
세종	7,186	56	129.2

[그림 38] 자영업³⁾ 폐업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



3) 개인사업자 기준, 간이는 간이과세자

3. 고연령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증가

3.5. 코로나 이후 고연령 자영업 차주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연령 차주의 채무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이후 대구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고연령 차주를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특히 대구의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는 19.4/4분기부터 24.2/4분기 동안 차주수와 연체차주수가 각각 2.2배, 4.3배 증가하였다. 고연령 차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규모도 고연령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4.2/4분기 기준 50대와 60대 이상 차주의 1인당 부채규모(각각 4.3억, 4.6억)는 여타 광역시(각각 3.5억, 4.0억)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업력이 길어지고 고령화²⁷⁾됨에 따라 상환능력이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소득 차주 비중(24.2/4분기말 기준; 67.1%)이 50대(73.7%)에 이어 높은 반면 이익 격차 등으로 인해 저소득 차주 비중도 상당히 높다(19.5%). 고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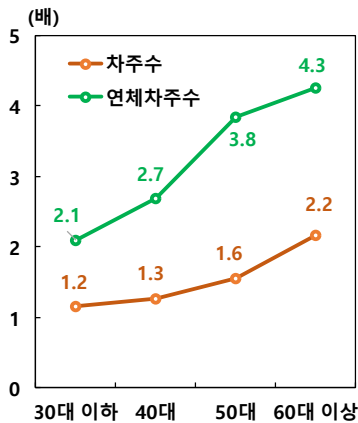
27) 전국 기준 근속기간이 21년 이상인 자영업자 비중은 2019.8월 17.7%, 2023.8월 19.6%로 자영업자의 업력이 점차 길어지고 자영업자는 고연령화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령 자영업자층에는 업력이 긴 경력 자영업자와 업력이 짧은 자영업자가 혼재되어 있어 상환능력의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여타 광역시 대비 대구지역 고연령 차주의 높은 부채수준과 차주수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대구 고연령 자영업자의 실제 채무부담과 대출 의존도는 과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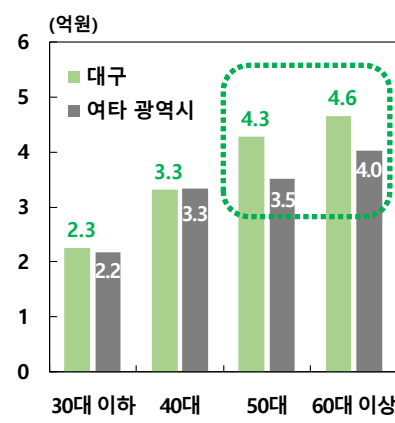
3.6. 고연령 차주의 높은 채무부담 수준은 다중채무로 이어져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24.상반기 기준 대구지역의 연령별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은 고연령층에서 높았으며, 여타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구지역 자영업 취약차주 대출은 전체 차주의 12.4%를 차지했는데,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해당 연령대 차주의 13.6%, 13.2%로 전 연령대 취약차주 비중(12.4%)보다 높았다. 이는 여타 광역시의 취약차주 비중(전체 12.2%, 50대 9.8%, 60대 이상 12.9%)보다도 모두 높은 수준이다.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내수회복 지연과 고금리 등에 따른 원리금 부담 증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금융 축소 등으로 인해 추가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가 대출수요는 저신용·저소득자가 많은 고연령 차주를 중심으로 다중채무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업력이 짧은 고연령 자영업 취약차주의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대출의존도를 더욱 높힐 수밖에 없어 향후 자영업 부채 연체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연령 신규 및 연체 차주가 확대 대구지역 고연령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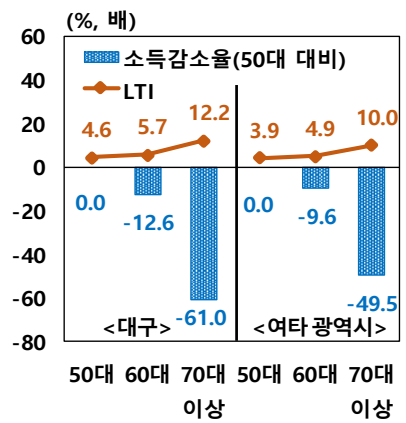
[그림 39] 대구 자영업자 연령별 차주수¹⁾ 증가율 (19.4Q-24.2Q)



[그림 40] 자영업자 연령별 1인당 자영업자 부채 (24.2Q)



[그림 41] 자영업자 연령별 소득감소율²⁾ 및 소득 대비 부채(LTI)³⁾ (24.2Q)



주: 1) 19.4/4분기말 대비 24.2/4분기말, 대부업권은 미포함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2) 지역별 50대 평균소득 대비 각 연령대 소득
3) 자영업자의 가계 및 사업자 대출 합산액 기준

3.7. 고연령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낮아지고 소득대비 부채수준도 높아 향후 상환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 고연령으로 접어들수록 평균소득이 감소하고 상환여력이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연령별 상환여력 격차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24.2/4분기 현재 대구지역의 자영업 차주의 평균소득은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하락하였다(60대 19.4/4 -10.3%→24.2/4 -12.6%, 70대 이상 -44.3%→-61.0%). 대구의 60대 이상 고연령 차주의 소득대비 부채 역시 여타 광역시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LTI(배); 대구 60대 5.7, 70대 이상 12.2, 여타 광역시 60대 4.9, 70대 이상 10.0). 향후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연령 자영업자의 부채상환여력²⁸⁾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 4.1.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직후 급증하였다가 2023년부터 둔화되었으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승 속도가 빠른 편이다. 대구지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직접적인 피해가 여타 지역보다 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구지역의 소비 개선이 지연되고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 이후 대출금리 상승, 금리우대·거치기간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 4.2. 최근 대구지역 자영업은 역내소비 축소로 인한 영업기반 약화 및 높은 경쟁강도 등으로 자영업자간 이익 격차가 확대되고, 채무부담이 높은 취약 자영업자(하위소득·고령층 등)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지역은 최근 민간소비 및 건설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내수 개선 지연, 대구 및 인근 지역에서의 상용근로자 감소, 여타 지역 대비 제한적인 수출증가에 따른 낙수효과 등으로 자영업 영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매우 악화되었다. 지역 자영업 전체의 수익 확대가 구조적으로 제약된 가운데 높은 경쟁강도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간 이익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수준이 높은 고령층 자영업자와 소득이 적은 영세규모의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시사점

- 4.3. 대구 자영업자의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출발기금²⁹⁾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재취업 등이 어려운 취약 자영업자(고령층 등)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부실(우려)여신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자금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우려)여신은 정부의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와 원금 조정 등을 유도하여 지역내 자영업자 잠재부실을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재창업 외에도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재교육 확대 등의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연령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지속하는

28) 다만 가계부채DB상 자료제약으로 차주별 보유자산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고연령일수록 보유자산 총액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외에 자산을 통한 상환여력은 타 연령대보다 양호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29)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출시되어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의 부실(우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출연기금 등을 재원으로 채권매입 등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기간 조정(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조정(보유자산을 반영해 0~80%),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금리조정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으며 신청 즉시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중지한다.

경향³⁰⁾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 컨설팅과 지역 일자리 연계 등 각종 취업정보 활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재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4.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환능력과 취약성 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신용관련 지표를 고도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변동성이 높고 개인 차주인 특성상 대출 취급과 사후관리에 있어 법인 차주의 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LTI, DSR 등의 다양한 심사지표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고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대출 취급 이후에도 대출의 건전성과 정책금융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는 자산 등 담보가치나 신용도뿐 아니라 LTI 등 자영업자의 영업성을 나타내는 차주단위 소득지표를 바탕으로 자영업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나 취약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다만, 지역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무지표와 실제 소득 간에 다소 괴리가 있으므로 소득에 대한 고도화된 추정값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은행³¹⁾이 활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CSS; Credit Scoring System)의 금융·비금융(대안) 정보 등을 자영업자 소득 추정과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한다면 향후 연체 등 신용사건 발생 이전에도 자영업자의 영업 및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5. 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용 절감, 매출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물가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영업비용을 줄이고 비대면·온라인 등 소비패턴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지역 자영업자에게 지역 공공 플랫폼인 '대구로' 이용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개·결제수수료 절감 등³²⁾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자영업자 자체적으로는 음식점·도소매업 등 자영업자가 밀집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도 창업과 사업 지속에 상권분석, 운영 컨설팅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과도한 경쟁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30) 한요셉(2020)은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지속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50대 이후의 단독자영업자에서 높게 나타남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는 50대 이후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31) 최근 인터넷은행 3사, 네이버페이 및 통신회사 등에서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매출정보나 소비패턴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대안적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출에 활용하고 있다.

32) 현재 대구로는 중개수수료 2%, 결제수수료 2.2%로 민간 플랫폼 대비 약 8~11% 저렴한 수준으로 지역 자영업자의 영업비용 절감과 더불어 결제일 정산에 따른 자금 유통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음식점업, 전통시장 및 택시 등 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자 지원과 대구 역내소비 활성화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4.6. 지역민과 외지인의 지역내 자영업종에 대한 역내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등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지역민의 역내소비 확대 방안으로는 대구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확대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구로페이’는 지역 공공플랫폼 앱인 ‘대구로’와의 연계가 용이하고 지역 자영업자³³⁾를 대상으로 한 역내 소비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는 2023년 4,329억원에서 2024년 2,830억원으로 축소³⁴⁾되었으며, 2025년에는 지역화폐 관련 국비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발행 규모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의 사용범위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활성화하여 역내소비 증가 및 자영업자의 수익 개선 등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발행 규모 확대나 유지를 위한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사용처를 전통시장, 영세규모 한정 등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타 지역민과 외국인 등 외지인을 대상으로 지역관광을 늘리고 대구지역내 소비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대구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야³⁵⁾ 할 것이다.

33) 대구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는 온라인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34) 2024년 대구로페이는 매달 발행일에 즉시 소진되는 등 발행규모가 지역수요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인당 한도가 축소되고 10월중 조기 소진되었다.

35) 비수도권 전시관중 관람객이 많은 대구 간송미술관 및 대구미술관과 연계하여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외부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구오페라하우스, DGB파크(대구FC홈구장), 라이온즈파크(삼성라이온즈홈구장), 사유원 등과 같이 대구시에 소재한 문화체육 관련 관광콘텐츠를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영업자의 출처별 정의 및 자영업자 부채 분석범위

-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출처에 따라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자영업자 분석대상으로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포괄하여 서술하였으나 출처 및 용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위는 다소 상이
 - (국세청 – 국세통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일반 및 면세, 간이 과세자로 구분
 - (통계청 –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개인사업체**는 개인이 혼자 소유 및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자영업자**는 유급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과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합
 - (통계청 – 소상공인실태조사)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제조·건설 및 운수업) 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로 정의
- **자영업자 부채**는 가계부채DB를 이용하여 전체 금융권(대부업 포함) 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액과 해당 차주의 가계대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
 - 다만 전체 차주가 아닌 약 100만 차주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값으로, 실제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또한 대구, 여타 광역시 등 지역별 분석시에는 지역구분이 되지 않는 결측치가 존재하므로 결측치를 제외하고 지역값이 존재하는 차주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

참고문헌

김일광(2018), “우리나라 자영업 업체 현황과 재무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1권 3호

김현열(2024),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금융브리프 포커스 33권 21호, 한국금융연구원

안균원(2024),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어승훈(2024), “강원 영동지역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한국은행 강원본부

임용빈(2024),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월간노동리뷰 2024-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조민경(2023), “대구지역의 지역간, 업종별 소비유출입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신용데이터(2024), “2024년 1~3분기 소상공인동향 리포트”

한국은행(2024), “최근 가계·자영업자 대출 동향 및 연체율 변동 특징”, 금융안정 보고서(2024.6)

한요셉(2022),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KDI FOCUS 통권 제 112호, 한국개발연구원

한요셉(2020), “생애주기별 자영업 선택과 동기”, 이진국 편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제2장, 연구보고서 2020-06, 한국개발연구원